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과 번역의 단계별 전략

김혜영

(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1. 서론

이 글은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의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대 번역학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번역학자들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서의 번역학을 강조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번역이 번역학의 고유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치우쳐 번역도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최근 텍스트 언어학에 기반한 일련의 번역학 논의들은 번역문이 하나의 글, 텍스트로서 가지는 보편성에 착안하고 텍스트 이론에 근거하여 번역 이론을 발전시킨 예이나, 과정으로서의 번역보다는 결과물로서의 글에 중점을 둔, 번역문이라는 결과 중심의 논의라 할 수 있다. 번역의 1차적 목표는 결과물로서의 번역문을 생산해 내는 데에 있다. 번역은 결과물로서의 번역문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관점에서

글쓰기 과정으로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번역의 원리와 번역 과정에서의 단계별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과 번역

쓰기(writing)의 주요 3변인은 텍스트, 필자, 예상 독자(audience)¹⁾이다. 쓰기 이론은 이 3요소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형식주의 쓰기 이론에서부터 인지주의 쓰기 이론,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으로 발전해 왔다(박영민 3).²⁾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개인의 인지 과정에 주목했던 인지주의 쓰기 이론가들이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서 강조한 담화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을 수용하여 인지주의 쓰기 이론을 수정·발전시킨 이론이다(박태호 42-50).

에미그(Emig 1971), 플라워·헤이즈(Flower & Hayes 1980) 등의 연구로 대표되는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인지 심리학에 기반하여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쓰기를 개인적인 필자가 일련의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 가는 사고 과정으로 본다.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쓰기의 3변인 가운데 필자 요인을 강조하여 유능한 필자를 대상으로 사고구술(think aloud)을 통해 확보한 프로토콜(protocol)을 분석함으로써 쓰기 과정 동안 필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필자가 글을 쓰는 동안 겪게 되는 문제 해결 과정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박영민 4-5).

-
- 1) ‘독자’를 ‘reader’로 번역하기 쉬우나, 쓰기 이론에서 ‘reader’는 ‘평가자’의 개념이다.
 2)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학자에 따라 구성주의 쓰기 이론, 인지 구성주의 쓰기 이론 등으로도 불린다. Nystrand(1993)은 쓰기 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면서 인지주의 대신 구성주의라 명명하였고, 형식주의,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외에 대화주의를 덧붙였다. 구성주의는 인식론의 하나로 지식 구성의 과정에서 개인을 중시할 것이냐 사회를 중시할 것이냐에 따라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로 구분되므로(박태호 15-20), 인지주의 쓰기 이론, 인지 구성주의 쓰기 이론과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주의 쓰기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조심스럽다. 본고에서는 인지주의 쓰기 이론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한다.

1980년대에 이르면 포스트모던의 철학 사조를 토대로 사회 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은 바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회 심리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이론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비젤(Bizzel 1986), 페이글리(Faigley 1985, 1986), 브루피(Bruffee 1984)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쓰기의 3변인 가운데 독자 요인에 주목하고 예상 독자와의 대화를 강조하였다.³⁾ 예상 독자에 사회적 성격을 더하면 담화 공동체가 된다(박영민 6). 필자와 예상 독자는 모두 담화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글쓰기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필자와 예상 독자가 담화 공동체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므로 글을 쓸 때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의 주장이다.

플라워(Flower 1993, 1994)로 대표되는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인지주의 쓰기 이론가들이 글쓰기를 개인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할 뿐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쓰기를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필자를 둘러싸고 필자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강조하면서 쓰기 과정에 필요한 문제 해결 전략을 보완하였다(박태호 44-45).

인지주의와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글을 쓰는 과정 동안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단계별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는 인지주의 및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번역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번역 역시 번역문이라는 글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번역 과정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사회 구성주의와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은 독자와의 대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서의 담화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번역이 번역자와 발주 기관 간의 상호작용 또는 기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 행위

3) 독자를 중시하는 이론의 극에 위치한 것이 해석주의이다. 해석주의에서는 필자, 즉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 즉 관객의 해석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론이나 번역 목표에 따라 번역이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스코포스 이론 및 번역에서 문화적 요소를 중시한 문화학적 번역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 말하는 담화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 작용은 행위 이론, 스코포스 이론, 문화적 번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지주의 쓰기 이론과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의 상호 보완을 통해 쓰기를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을 번역에 적용함으로써, 번역 역시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번역자를 둘러싸고 번역자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저자 및 예상 독자들로 구성된 담화 공동체를 고려하면서 번역 과정에 필요한 단계별 번역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번역 전략의 제시는 번역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번역의 원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3. 번역의 개념과 원리

3.1 번역의 개념

번역의 1차적 목표는 결과물로서의 번역문을 생산해 내는 데에 있다. 번역은 결과물로서의 번역문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번역은 번역자가 출발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이를 도착어 텍스트로 옮겨 쓰는,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과정이다. 사실, 일기와 같은 일부 텍스트 유형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글쓰기가 읽기 과정을 포함한다. 독후감을 쓰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하고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선행 연구와 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찾아 읽기도 한다. 심지어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창작에서도 다양한 자료의 글 읽기가 수반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번역이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사

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관점으로 번역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번역학 연구는 번역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논의에 치우친 감이 있다. 최근 텍스트 언어학에 기반한 일련의 번역학 논의들은 번역문이 하나의 글, 텍스트로서 가지는 보편성에 착안하고 텍스트 이론에 근거하여 번역 이론을 발전시킨 예이나, 과정으로서의 번역보다는 결과물로서의 글에 중점을 둔, 번역문이라는 결과 중심의 논의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번역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글쓰기 과정으로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번역의 개념을 재정리하도록 한다.

쓰기를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의 개념을 재해석하면, 번역은 “출발어로 쓰인 텍스트를 예상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담화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도착어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를 재생산, 재창조하는 의미 구성 과정이자 의사소통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3.2 번역의 원리

이 절에서는 3.1에서 정의한 번역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번역의 원리를 설정하여 제한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번역의 원리는 ‘담화 공동체 참여의 원리’, ‘읽기-쓰기 통합의 원리’, ‘순환성 원리’, ‘대화의 원리’, ‘학문 협업의 원리’의 5가지이다.

1) 담화 공동체 참여의 원리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 쓰기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며 의사소통 과정이다. ‘번역문 글쓰기’로서의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번역자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번역을 매개로 하여 담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 구성주의 및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예상 독자를 중요하게 여긴다. 예상 독자는 필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다. 개개인으로서 이루어진 예상 독자의 집단적 개념이 바로 담화 공동체이고, 예상 독자, 번역자 모두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번역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자는 담화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담화 공동체 안에서의 표현 양식이나 규약, 즉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담화 공동체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언어 문화권이 될 수도 있고, 해당 텍스트와 예상 독자가 속하는 전문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된 의학 관련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한국, 한국어 문화권이 하나의 담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의학계도 하나의 담화 공동체가 된다. 번역자는 한국어 문화권이라는 담화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규약, 언어적 관습과 규약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의학 전문 용어를 비롯하여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관습과 규약도 익혀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담화 공동체 안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혹은 예상 독자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성별, 특정한 연령대, 특정 직업군의 집단이 담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번역자는 번역문을 쓰는 필자임과 동시에 원문을 읽는 독자다. 그래서 출발어를 사용하는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번역자는 필자로서 속한 담화 공동체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독자로서 속한 담화 공동체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번역자가 독자로서 속한 담화 공동체, 즉 출발어 문화권의 담화 관습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번역은 번역자가 이 모든 담화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

2) 읽기-쓰기 통합의 원리

3.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은 번역자가 출발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도착어 텍스트로 옮겨 쓰는,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과정이다. 다른 유형의 글쓰기도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읽는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읽기-쓰기’가 통합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유형의 글쓰기와 달리 번역에서의 읽기와 쓰기의 행위는 동시적이며 반복적이다. 읽기와 쓰기가 거의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동시적이라 할 수 있고, 번역이 완료될 때까지 읽기와 쓰기가 반복하여 계속된다는 점에서 반복적이라 할 수 있다.

번역에서 ‘읽기-쓰기’의 통합은 필수성과 긴밀성을 띠기도 한다. 독후감이나

논문과 같은 몇몇의 글쓰기 유형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읽기’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출발어로 쓰인 원문 ‘읽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 번역에서는 출발어로 읽은 것을 가능한 한 그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도착어로 재현하여 써내야 한다는 점에서 읽기와 쓰기의 관계가 긴밀하다.

3) 순환성 원리

본고에서는 번역의 과정을 ‘계획하기→이해하기(자료 조사→초벌 읽기)→표현하기→수정하기’ 단계로 설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번역 과정은 필자(번역자)가 지닌 상위 인지 기능에 의한 반성(reflection) 작용에 의해 그 이전 단계로 회귀 또는 순환하게 된다.⁴⁾ ‘초벌 읽기’를 마치고 나서, 혹은 ‘초벌 읽기’ 중에 배경 지식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 조사’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앞의 다른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번역의 과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대화의 원리

글쓰기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며 필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실제적 타자를 내면화한 내면적 타자와 내면적 자아와의 심리적 대화가 사고이며, 이것이 언어로 표상되어 실현된 것이 글이라 보았다(박영민 5-6).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쓰기 이론에서는 예상 독자와의 대화와 협상⁵⁾을 강조하였다.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다.

번역에서도 실질적인 번역 행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조사를 통해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예상 독자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익혀야 한다. 본격적인 표현하기 단계에 들어가서는 담화 공동체 속에서 예상 독자와의 끊임없는 내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번역해야 한다.⁶⁾ 이러한 점에서 대화의 원리는 텍스트 이

4) 원진숙(2005)은 과정 중심 워크숍 활동을 통한 학술적 글쓰기 지도 방법의 운영 원리로 ‘순환성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74-75).

5) 협상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론에서 제시한 텍스트성 가운데 독자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용인성과 대응될 수 있다.

5) 학문 협업의 원리

번역학은 외국어문학, 국어국문학을 비롯하여 각 전문적인 학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번역자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한 분야에만 정통해서는 안 된다. 외국 문학의 번역이 주를 이루었던 현대 번역사의 초기에는 번역에서 외국어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번역은 외국어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전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외국어의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각 전문 분야별로 각기 독자적으로 번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하든 외국어와 도착어, 해당 번역서의 전문 영역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번역 과정에서 지식의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각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4. 번역의 과정과 단계별 번역 전략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2장에서 살핀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과 3장에서 제시한 번역의 개념 및 원리를 토대로 번역 과정의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플라워(원진숙·황정현 16-18)는 글쓰기 과정을 9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계획하기(Planning)

1단계 : 수사적 문제를 탐구하라

전략 1 :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 이미지를 관찰하라.

전략 2 : 스스로에게 과제를 설명해 보라.

6) 라보(E. Lavault 1998)도 번역자는 가상 독자와 자신의 번역에 대하여 협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석규 외 111).

2단계 : 계획을 세워라

전략 1 :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과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전략 2 : 목표를 보다 실행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전략 3 :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계획을 변경하라.

전략 4 : 독자에게 계획하고 있는 바를 설명해 보라.

전략 5 : 협조적 계획하기를 이용하라.

2) 아이디어 생성하기(Generating Ideas in Words)

3단계 :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라

전략 1 :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라.

전략 2 : 독자에게 이야기하라.

전략 3 : 체계를 세워서 주제를 탐색하라.

전략 4 : 폭 쉬면서 계획을 구체화하라.

4단계 : 아이디어를 조직화하라

전략 1 : 자기 나름의 암호어를 확장시켜라.

전략 2 : 아이디어를 요약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라.

전략 3 : 개념구조도를 구성하라.

3) 독자 중심의 글쓰기(Designing for a Reader)

5단계 : 독자의 요구를 파악하라

전략 1 : 독자를 분석하라.

전략 2 :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라.

전략 3 : 창조적 독자를 위하여 글을 조직하라.

6단계 : 필자 중심의 글을 독자 중심의 글로 변형시켜라

전략 1 :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라.

전략 2 : 독자 중심의 글 구조를 개발하라.

전략 3 : 독자에게 단서를 제공하라.

전략 4 :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발전시켜라.

7) 원진숙·황정현(1998)은 플라워(Flower 1993)의 ‘Generating Ideas in Words’를 ‘아이디어 생성하기’로 번역하였으나 ‘Generating ~ in Words’의 의미를 살려 ‘아이디어를 글로 나타내기’로 번역하는 대안도 있음을 밝힌다.

4) 글을 효과적으로 고쳐쓰기(Revising for Effectiveness)

7단계 : 글과 글쓰기 목적을 검토하라

전략 1 : 글쓰기 목표, 요점,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라.

전략 2 : 문제점을 찾아서 진단해 보고 교정하라.

8단계 : 글을 평가하고 편집하라

전략 1 : 경제성을 고려하여 글을 편집하라.

전략 2 : 강력한 문체로 편집하라.

9단계 : 글의 내용이 서로 잘 연결되면서 일관성이 있도록 편집하라

전략 1 : 목록 형식의 문장들을 변형하라.

전략 2 : 단락들을 통해서 글의 내적인 논리를 드러내라.

플라위의 9단계 글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글쓰기, 고쳐쓰기’의 4단계로 요약된다.⁸⁾ 번역은 쓸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원문 텍스트 읽기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로 옮겨 쓰는 것이므로 쓸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고, 개요를 짜는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⁹⁾ 대신 번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글쓰기’ 단계-번역에서는 도착어 텍스트로 옮겨 쓰는 단계-전에 번역할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단계로 설정한다. 출발어를 도착어로 전환하는 실제적인 번역에 착수하게 되면, 구절 혹은 문장의 단위로 출발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도착어 텍스트로 옮겨 쓰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읽기-쓰기’가 통합되어 반복되는 과정을 ‘글쓰기’ 대신 ‘표현하기’ 단계로 명명한다. 따라서 번역의

8) 원진숙(2005)는 플라위의 9단계 글쓰기 과정을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요약하기도 했다(68-69).

9) 『걸리버 여행기』와 같이 성인 대상의 소설을 동화로 재구성하여 번역하는 등, 의도를 가지고 출발어 텍스트를 축소 번역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이 완료된 완역본을 대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번역의 과정에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과정은 ‘계획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고쳐쓰기)’로 요약된다.

곽성희(Kirk, S. H. 2001)는 번역 과정을 ‘목표 텍스트의 기능 분석, 원문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 적절한 전환을 거쳐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도착어로 번역물을 재구성’하는 3단계로 구분하였다(남성우 82). 곽성희의 1단계인 ‘목표 텍스트의 기능 분석’이 본고의 ‘계획하기’ 단계에 포함된다. 곽성희의 2단계와 3단계는 ‘이해하기’와 ‘표현하기’로 요약된다. 본고에서는 ‘이해하기’ 단계를 ‘자료 조사’와 ‘초벌 읽기’로 나누고, ‘표현하기’의 후단계로 ‘수정하기(고쳐쓰기)’를 설정하여 번역의 과정을 ‘계획하기→이해하기(자료 조사→초벌 읽기)→표현하기→수정하기’ 단계로 구분한다. 글쓰기 과정의 ‘아이디어 생성하기’ 대신 ‘이해하기’ 단계가 삽입된 것을 제외하면 번역의 과정은 글쓰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플라워의 글쓰기 방법으로서의 문제 해결 전략을 참고로 하여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번역 과정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번역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다.

1) 계획하기

‘계획하기’는 번역의 전체 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번역은 이미 글의 주제와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계획하기’ 단계는 플라워의 글쓰기 과정의 5단계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

- 가. 번역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 나. 독자를 분석하라.
 - 번역을 의뢰한 출판사의 번역 출판 의도를 분석하라.
 - 예상 독자의 지식, 태도, 요구 등을 분석하라.
- 다.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라.
- 라. 단계별로 시간을 안배하라.

독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번역을 의뢰한 출판사의 번역 출판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민담을 번역할 때 독자층을 성인으로 할 것인지, 어린이로 할 것인지에 따라 내용에 가감도 필요하고 문장 표현법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사로부터 번역을 의뢰 받아서 번역을 할 때에는 번역을 완성해서 출판사로 넘겨야 하는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각 단계별로 적당히 안배할 필요가 있다. 시간에 쫓겨 번역자 스스로 감수하고 교정을 하는 ‘수정하기’ 단계를 허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정하기’ 단계가 번역문의 완성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2) 이해하기

(1) 자료 조사

‘자료 조사’는 원문 텍스트를 읽기 전에 원저자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가. 원저자 정보를 수집하라.

- 필자의 이력, 저술 의도와 목적, 시대·사회·문화적 배경, 학문적 기반, 개인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

나. 텍스트 정보를 수집하라.

- 텍스트의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텍스트 유형의 특성을 인지하라.
- 자료 수집을 통해 전문 영역의 배경 지식을 획득하라.

번역을 할 때는 무작정 원문을 읽는 것보다 번역할 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번역에 훨씬 도움이 된다. 다음 예를 보자.

- (1) [ST] It was the winter of 1963, and Plath had been living with her husband, Ted Hughes, in Devon, several hours outside London in the English countryside. Hughes had insisted that they move there so he could have his solitude. She had just published her autobiographical novel, *The Bell Jar*, under a pseudonym. (Jeffrey A. Kottler 9-10)

- (2) [TT1] 1963년 겨울 실비아는 남편 테드 휴즈와 영국 런던에서 몇 시간 떨어진 데본에서 살고 있었다. 휴즈는 호젓한 곳에서 살고 싶다며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했다. 실비아가 그녀의 자전 소설 『벨자(The Bell Jar)』를 가명으로 출간했을 때였다.

예문 (1)은 코틀러(Jeffrey A. Kottler)가 광기를 지녔던 10인의 천재적 예술가를 소재로 쓴 책 *Divine Madness* 가운데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이고, 예문 (2)는 (1)을 익명의 번역자가 번역한 것이다.¹⁰⁾ (2)에서 번역자는 1963년에 실비아가 남편과 함께 데본에서 살고 있었다고 번역했는데, 이는 오역이다. 실비아의 일생을 보면, 실비아는 남편 휴즈와 결혼해서 데본에서 살다가 1962년에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런던으로 이사를 했으며, 1963년 초에 『벨자』를 출판하고 그 해 2월에 자살했다. 이 단락의 뒷단락 내용이 실비아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바로 뒷단락의 이야기가 1963년의 일이고, 휴즈와 데본에서 살았던 것은 그 전, 그러니까 1962년의 일이다. 1962년에 휴즈가 혼자 살겠다고 실비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한 것이다(사실 휴즈는 새 애인과 동거를 하려고 했다). 이러한 오역은 번역자가 출발어의 문법에 서툰 탓도 있지만, 실비아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은 탓이 크다. 만약 사전에 실비아의 일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았다면 이런 오역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초벌 읽기

‘초벌 읽기’는 원문 텍스트를 읽으면서 대략적인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 조사의 보충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번역을 위한 읽기는 번역자가 구사하는 읽기 전략에 따라 ‘텍스트 정보 처리를 위한 연속적 읽기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행위와 ‘정보처리 부담을 덜기 위한 번역 전(前) 읽기 전략’에 따른 행위로 나뉘는데, 후자의 전략을 구사하는 번역자는 실제 번역에 임하기 이전, 즉 번역의 1차 단계에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번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번역의

10) 한 출판사에서 Jeffrey A. Kottler의 *Divine Madness*를 번역 출판하기 위해 몇 명의 번역가에게 샘플 번역을 의뢰하여 그 가운데 한 명을 번역가로 선정하였는데, (2)는 이 책의 번역가로 최종 선정된 번역가의 번역 샘플이다.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며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실제 번역 단계를 시작한다(남성우 85). 후자의 1차 단계 읽기 및 문제 해결 과정이 바로 본고의 ‘초별 읽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번역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할 때, 혹은 텍스트 내용의 난이도나 친숙도에 따라서도 생략이 가능하다. ‘초별 읽기’ 단계를 생략할 때에는 다음 단계인 ‘표현하기’ 단계에서 ‘초별 읽기’ 단계의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번역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가. 원문의 형식과 의미, 문체, 시점 등을 파악하라.
- 나.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을 파악하라.
- 다. 자료 조사의 보충이 필요한지 확인하라.

특히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원문의 형식과 의미, 문체와 시점 등을 파악하고 원문의 형식과 문체, 시점 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원문의 문학성을 덜 훼손하는 방법이겠지만, 고어체나 방언은 도착어로 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 서적이라면 원문에 사용된 전문 용어를 모두 확인하고 자료 조사를 보충하는 일이 중요하다. ‘초별 읽기’를 통해 자료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면 ‘표현하기’ 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 자료 조사를 보충해야 한다.

3) 표현하기

‘표현하기’는 출발어를 도착어로 옮기면서 번역문을 쓰는 단계이다. 처음부터 도착어의 담화 관습까지 고려하는 완벽한 번역을 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출발어에 중점을 두고 원문의 통사와 어휘에 충실하게 번역한 다음에 이를 도착어 텍스트답게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듬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다음의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 가.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라.
- 나.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라.
- 다. 단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라.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마. 텍스트성을 갖추라.

- 의미 전달에 충실하라.
-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라.
- 적법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 용어와 문체의 통일성을 지켜라.
-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라.
- 예상 독자와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 독자의 입장을 반영하라.
- 독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 맥락을 고려하라.
- 텍스트의 유형을 고려하라.¹¹⁾

바. 도착어 및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따르라.

오역은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본 예문 (2)는 예문 (1)의 “they move there”에서 move 다음에 전치사 to가 오지 않았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했다”고 오역을 하고 말았다. 오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예문 (2)는 ‘solitude’나 ‘pseudonym’의 의미의 해석도 어색하다. 휴즈는 ‘호젓하게’ 살고 싶어서 테본으로 이사를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살기 위해서 실비아에게 아이들과 함께 테본을 떠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실비아가 작가이므로 ‘pseudonym’는 가명보다 ‘필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단어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사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단어가 단어어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한 단어가 가진 여러 개의 의미 중에서 해당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외국어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쉬운 단

11) 라이스(Reiss 1976)는 텍스트 유형을 정보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작용적 텍스트, 시청각 미디어 텍스트로 나누고 각각의 텍스트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번역 방법을 제안하였다(정연일·남원준 옮김 100).

어일수록 특정 문맥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단어 개개의 의미 함으로 해석할 수 없는 관용구에 유의해야 한다. 단어 개개의 의미 함으로 해석했을 때 문맥상 어색하다면 관용구로 쓰인 것은 아닌지 사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의 경우에는 단어가 다양한 은유적,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여 번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3) [ST] 물이 신고 가는 물의 신발과 물 위에 찍힌 물의 발자국, 물에 업힌 물과 물에 안긴 물
 물의 바닥인 붉은 포장과 물의 바깥인 포장 아래서,

국수를 만다

허기가 허연 김의 몸을 입고 피어오르는 사발 속에는 빗물의 흰 머리인 국수발,
 첫가락마다 어떤 노동이 매달리는가 (신용목, 「붉은 얼굴로 국수를 말다」 中)

- (4) [TT] Shoes of water worn by water, footprints of water imprinted on water, water piggybacked on water, and water embraced by water—
 Under the red tent that is the bottom of water as well as the outside of water,

They are rolling noodles.

In the bowl, from which hunger, clad in white vapors, rises up,
 Strands of noodles, white hair of rainwater—
 What labor is hanging from those chopsticks?¹²⁾

예문 (3)은 신용목 시인의 시 「붉은 얼굴로 국수를 말다」의 일부이고, 예문 (4)

12) 문학 번역가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한인 연구원의 번역으로, 신용목 시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이다.

는 이를 영역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번역은 ‘국수를 말다’의 번역이다. ‘국수를 말다’는 ‘국수를 국물에 넣어서 풀다’의 뜻이므로¹³⁾ ‘roll noodles’가 아니라 ‘put noodles into soup’으로 번역해야 한다. (4)에서는 ‘국수’를 고려하지 않아 ‘말다’를 ‘roll’의 뜻으로 오역하고 말았다.

‘표현하기’ 단계에서 ‘텍스트성을 갖추라’는 전략은 번역문이 하나의 훌륭한 도착어 텍스트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텍스트성이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데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말한다. 이석규 외(2002)는 텍스트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7가지 특성, ‘응집성’, ‘응결성’,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텍스트 상호성’에 따라 번역문을 분석하고 어떤 번역이 출발어의 의도를 살리면서 동시에 도착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언어 표현에 적합한 것인지를 고찰한 바 있다(61-144).

이 단계에서 또 한 가지 요구되는 전략은 도착어의 담화 관습을 따르는 것이다. 다음 동요 가사를 보자.

- (5)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中」)

위 예문은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의 가사이다. 이 노래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파랗다’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한국어에서는 ‘blue’와 ‘green’이 모두 ‘파랗다’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파란 잎’의 ‘파란’은 ‘green’으로, ‘파아란 하늘’의 ‘파란’은 ‘blue’로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고 ‘용인성’을 갖추게 되지만,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파랗다’가 ‘blue’와 ‘green’의 의미를 모두 가짐으로써 생기는 중의성의 특징을 살릴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목 ‘파란 마음 하얀 마음’과 ‘여름엔 여름엔 파랗거예요’에 사용된 ‘파랗다’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13) 여기서 ‘말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말다02’로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다’의 뜻이다.

다. 이는 각 언어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장(semantic field)의 문제인데, 이 역시 넓게는 해당 언어권의 담화 관습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5)에서는 ‘파란 잎’을 포함하여 ‘파랗다’를 모두 ‘blue’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한국어에서 하늘과 산, 들, 나뭇잎의 색깔을 모두 ‘파랗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높임법’의 표현이다. 높임법은 대체로 호칭, 조사, 어미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영어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인칭 대명사 ‘he/his/him’이나 ‘she/her’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반드시 언니, 오빠, 형, 누나,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같이 친족 관계어에서 파생된 호칭이나 선생님, 사장님, 과장님과 같이 직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대신해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6) 그러다 갑자기…,

“끼라!”

끼루는 소리를 지르며 필쩍 뛰었어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바람에 누나 끼라를 잊고 온 거예요.

……

“좋아, 가서 끼라를 구하고 말 거야!” (조세형 옮김, 『아기 다람쥐야 도망쳐!』 中)

위 예는 (주)한국뼈아제에서 번역 출판한 루이 에스피나수의 동화 『아기 다람쥐야 도망쳐!』의 일부이다. 이 동화에서 끼루와 끼라는 아기 다람쥐 남매의 이름이고 ‘끼라’가 누나이기 때문에 (6)에서 “끼라!”는 “누나!”로 번역해야 하며, “좋아, 가서 끼라를 구하고 말거야!”도 “좋아, 가서 누나를 구하고 말거야!”로 번역해야 한다. 순위 형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국어의 담화 관습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이다. (6)에서와 같은 번역 실수는 흔히 발견된다. 말을 배우는 단계의 어린이들을 독자로 할 때에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호칭 외에 담화 관습과 관련하여 번역에서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1인칭 소유격의 표현이다. 영어의 ‘my’는 ‘나의, 내’로 번역하는 것이 자

연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my mommy, my daddy, my husband, my baby, my house, my school’ 등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기, 우리 집, 우리 학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물론 ‘my’는 상대에 따라 ‘제, 저희’와 같은 겸양의 인칭 대명사로 번역할 수도 있다.

4) 수정하기(교쳐쓰기)

이 단계는 번역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초고를 교쳐 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가. 글과 글쓰기 목적을 재검토하라.
- 나. 문제점을 찾아서 진단하고 교정하라.
- 다. 경제성 측면에서 글을 평가하고 수정하라.
- 라. 독자의 입장에서 번역문을 다시 읽어라.
- 마. 번역문이 텍스트성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라.
- 바. 맞춤법·띄어쓰기를 다시 확인하라.
- 사. 일관성 있게 편집하라.

문제점을 찾아서 진단하고 교정할 때에는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오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문장을 원문과 대조하기는 어려우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번역문을 읽으면서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원문과 대조하도록 한다. 편집의 일관성에서는 고유명사나 용어의 번역에 통일성을 기하고, 문체도 일관되도록 한다.

5. 결론

본고는 번역이 ‘읽기-쓰기’ 과정이 통합된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번역을 위한 번역 과정의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의 개념을 ‘출발어로 쓰인 텍스트를 예상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담화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도착어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를 재생산, 재창조하는 의미 구성 과정이자 의사소통 과정’으로 재정리하고 번역의 원리를 ‘담화 공동체 참여의 원리’, ‘읽기-쓰기 통합의 원리’, ‘순환성 원리’, ‘대화의 원리’, ‘학문 협업의 원리’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번역의 과정을 ‘계획하기→이해하기(자료 조사→초벌 읽기)→표현하기→수정하기(고쳐쓰기)’로 단계를 구분,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번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 단계별 번역 전략을 세워 보았다.

본고에서 제안한 번역 전략은 다소 비체계적인 면이 있을뿐더러, 필자의 부족함으로 더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도 본고의 한계다. 본고에서 제안한 번역 전략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확대될 수도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각 번역 전략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를 통해 보이지 못한 점도 이쉽다. 이에 대해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민. 2008. 「글쓰기 이론과 글쓰기 교육」. 『글쓰기 교육 전문가 과정 자료집』. 3-12. 고려대학교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 박태호. 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진숙·황정현 옮김. 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서울: 동문선.(Flower, L. 1993.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Fourth Edition. Harcourt Brace College.
- 원진숙. 2005.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 교육 방법」. 『어문논집』 51, 55-86. 민족어문학회.

- 신용목. 2007. 『바람의 백만번째 어금니(창비시선 278)』.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석규 외 5인 공저.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 이재승. 2006.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향. 2007. 『번역물 감수와 번역 교육』.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정연일 ·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Jeremy Munday. 2000. *Introduction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조세형 옮김. 2002. 『아기 다람쥐야, 도망쳐!』. 고양: (주)한국빼아제.(Louis Espinassous. 2000. *Sauve-toi vite écureuil !*. France: Milan.)
- Bizzel, P. 1986. "Composing process: an overview." In Petrosky Anthony & Bartholomae David(eds.). *The teaching of Writing*. U of Chicago P.
- Bruffee, K. A. 1984. "Collaborative learning and the 'conversation of mankind'" *College English* 46, 635-652.
- Emig, J. 1971. *The composing processes of twelfth graders*. Urbana, IL: NCTE.
- Faigley, L. 1985. "Nonacademic writing: the social perspective." In L. Odell & D. Goswami(eds.). *Writing in Nonacademic Settings*. NY: Guilford.
- Faigley, L. 1986. "Competing theories of process: a critique and a proposal."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8, 527-542.
- Flower, L. & Hayes J. R. 1980. "The cognition of discovery: Defining a rhetorical problem."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0.
- Flower, L. 1994. *The construction of negotiated meaning*. Southern Illinois UP.
- Jeffrey A. Kottler. 2006. *Divine Madness: Ten Stories of Creative Struggle*. San Francisco: JOSSEY-BASS.
- Kirk, S. H. 2001. *Translation and Textuality: A Case Study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Seoul: Hankook Publishing Co.
- Nystrand, M. Green, S. Wiemelt, J. 1993.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 *Written Communication* 10-3, 276-333.
- Reiss, K. 1976. *Testtyp und bersetzungsmethode: Der operative Text*. Kronberg: Scriptor Verlag.

[Abstract]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and Translation Strategy by Stages

Kim, Hye-young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strategy by stage of transl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for effective translation. Since the translation is a series of process to yield translated sentences as a result object, it can be referred to as writing process. Based on the point of view that the translation is the writing process integrated with 'reading-writing', we re-establish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and present with the principle of translation and the translation strategy by stages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As the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regards the writing as the meaning composition process through interactions with members of the discourse community and emphasizes the social environment which influences the meaning composition process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writer, it compliments the strategy of solving problems required in the writing process. So we re-establish the concept of translation as 'communication process as well as meaning composition process which re-produce and re-create a completed text, by interpreting the text of a start language as the text of a target language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discourse community through conversation with audience'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And we set up the principles of translation with five categories of 'participation principle to discourse community', 'integration principle of reading-writing', 'conversation theory', and 'interdisciplinary principle'.

We establish the process of translation as categories of 'Planning→

understanding(data investigation→rough reading)→Expressing→Revising', and suggest the translation strategy by stages required during the course of translation for effective translation, referring to the problem solving strategy by stages during the writing process presented as method of writing in the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 Key Words: social cognitive writing theory, discourse community, principle of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y, translation process

김혜영

고려대학교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cojump@empal.com

관심분야: 국어학(통사론, 글쓰기), 번역학(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8일